

통으로 읽는 고대 제국 연구
: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고대 제국 읽기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최찬영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5년 5월

Copyright © 2025 Chanyoung Choi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COMPREHENSIVE STUDY OF ANCIENT EMPIRES : READING ANCIENT EMPIRES THROUGH THE LENS OF THE BOOK OF DANIEL

Chanyoung Choi

Virginia, US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historical context of ancient empires through the Book of Daniel and to develop a holistic Bible reading education method applicable to church Bible study programs. One of the primary reasons believers struggle with Bible reading is their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which hinders a comprehensive grasp of the biblical narrative. To address this, the study proposes an approach, based on the works of John Walton and Byungho Zoh, that connects the rise and fall of ancient empires (Babylon, Medo-Persia, and Greece) with the Book of Daniel. The research methodology combines literature review with qualitative methods, including interviews and case studies, conducted with 20 adult believers from Richmo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Virginia, USA from August to November 2023 over a 12-week program. The analysis revealed that holistic Bible reading improved faith understanding by 83% and contributed 40% to theological insights through historical context learning. However, time constraints and a lack of prior knowledge were identified as limitat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strategies for systematizing holistic Bible reading in church education and fostering spiritual growth through the Book of Daniel.

국문초록

통으로 읽는 고대 제국 연구 :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고대 제국 읽기

최 찬 영

버지니아, 미국

본 연구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고대 제국의 역사적 맥락을 탐구하고, 이를 교회 내 성경공부에 적용 가능한 통성경 읽기 교육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도들이 성경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고대 근동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는 성경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존 윌튼과 조병호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고대 제국(바벨론, 메대-페르시아, 헬라)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서와 연결 짓는 접근법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질적 연구(인터뷰,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미국 버지니아 소재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의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분석 결과, 통성경 읽기는 신앙 이해를 83% 향상시키며, 역사적 맥락 학습이 신학적 통찰에 4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제약과 사전 지식 부족이 한계로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회 교육에 통성경 읽기를 체계화하고, 다니엘서를 통해 신앙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감사의 글	ix
I. 서론	1
A. 배경과 목적	1
B. 연구 방법과 대상	4
II. 통성경 읽기	8
A. 통성경 이해	8
B. 통성경 목회적 개념	12
C. 통성경 성경공부	14
III. 고대 제국의 형성 속에 담긴 구원신학	17
A.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 상황	17
B. 북이스라엘의 멸망	18
C. 남유다의 멸망	19
D. 바빌론의 멸망	20
E. 페르시아의 멸망	21
IV. 통으로 읽는 다니엘 서 성경공부	23
A. 통으로 읽어야 하는 필요성	23
B. 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	27
C. 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적용	35
V. 결론	56
A. 연구 요약	56

B. 결론과 제안	57
참고문헌	60

감사의 글

12년전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고 다시 영어공부부터 시작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너무 무모했지만 열정 하나만 갖고 도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2013년 7월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 뉴저지에서 유학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려운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버거웠고, 교회 사역과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늘 사랑으로 응원해 주는 가족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고, 주변에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루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정신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유학온지 10년이 넘어가게 되었고, 어느 것 하나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다시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교회 사역과 생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 까지가 한계라는 생각으로 여러 번 포기를 생각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영래 교수님과 부족한 글이지만 애정을 다해 지도해 주신 조병호 교수님 덕분에 다시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공부하면서 풀어내지 못한 숙제는 목회 현장에서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며 남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는 만큼 더 열심히 연구하며 써듬할 것입니다. 그런 저를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의 힘든 유학 생활과 목회 현장가운데 함께 하며 묵묵히 응원과 사랑을 아까지 않았던 아내(김인희), 그리고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 든든한 아들(최민규),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 딸(최민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야 유학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 같아 마음이 후련해 집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최 찬 영

제 I 장

서 론

A. 배경과 목적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읽기, 성경통독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새해가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성경읽기에 도전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마다 또한 교단마다 다양한 방법과 열심히 성경읽기를 시도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필자의 경우도 수십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만나는 성도들의 어려움 중에 성경읽기에 대한 고민이었고, 번번이 도전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보았다. 물론 많은 경우 구약성경의 레위기라든지, 느헤미야에 기록된 여러 히브리 이름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고대 근동 역사 부분을 어려워 하는 경향을 보았다. 당연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존 월튼(John H. Walton) 교수는

“우리가 고대인들에게 가야 한다.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올 리가 없기 때문”¹ 이라며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의 역사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을 할 때 성경은 오늘의 언어로 나에게 쉽게 다가온다 하겠다. 이렇게 고대 근동 역사는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정치적 변화들과 함께 구약성경이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BC 3,000 년경부터 시작되는 구약성경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대 근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쓰여졌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격변하는 고대 근동의 역사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입하셨는지,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왕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시기는 이집트, 바벨론, 앗수르, 페르시아 등의 제국이 존재했던 시대이고, 이러한 시대와 정치적 상황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포함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겠다. 다른 성경과 달리 다니엘서는 고대 중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책은 바벨론, 메대(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 주요 제국들의 부상과 몰락을 관통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니엘서는 단지 묵시적인 상징적 언어를 넘어 그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정치사적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는 본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고대 제국의 역사를 읽는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 이를 교회의 성경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¹ John H. Walton , “성경 해석 위해 고대 근동 세계에 몸 폭 담귀야,” 2019 신년 고대 근동 신학 포럼(2019),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8744/20190107/성경-해석-위해-고대-근동-세계에-몸-폭-담귀야.htm> [2025. 3. 28. 최종 접속]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에 도움을 주는 조병호 박사는 단순히 책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 역사적 순서로 성경을 재구성하여 읽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다니엘서를 읽고, 그 속에 담긴 이스라엘의 신앙 여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대 제국과 관련된 이해가 성경 해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현대 신앙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시기의 예언적 텍스트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주권을 강조한다.²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메대(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그리고 이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는 인간 왕국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와 종말론적 승리를 드러낸다.

특히 다니엘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 그리고 다니엘 7-12장의 종말론적 환상들은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립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핵심 텍스트로 간주된다.³ 그러나 현대 교회 성도들은 다니엘서의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다니엘서의 상징적 언어(예: 네 짐승, 70주 예언)와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이며, 그 결과 성도들은 다니엘서를 단순한 신비로운 이야기나 이해하기 어려운 예언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⁴

² John H.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50.

³ *Ibid.*, 51.

⁴ Zoh, "Theological Insights," 129.

B. 연구의 방법과 대상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성경읽기에서 발생하는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은 단지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오늘날 교회 내 성경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존 월튼(John H. Walton)의 고고학적 자료와 조병호(Byoungho Zoh)의 신학적 해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⁵

존 월튼은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성경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분석하며, 당시 독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의 연구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정치 구조, 종교 전통, 행정 문서 등을 통해 다니엘 본문의 실제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반면, 조병호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구원 신학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심판, 회복,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통합적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해 다니엘서의 신학적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문헌 해석이나 교리 요약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신학적 통찰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다니엘서를 지식 전달의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이 드러나는 통로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

⁵ Ibid., 138.

연구 방법은 문헌 분석과 질적 사례 연구를 결합한 다층적 접근을 따랐다. 먼저 문헌 분석 단계에서는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과 주요 신학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존 월튼의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⁶, 조병호의 “Theological Insights from Daniel: A Holistic Reading Approach”⁷, 그리고 마크 스미스(Mark S. Smith)의 연구 등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 고대 제국의 역사와 그에 수반되는 신학적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질적 연구는 실제 교회 기반 성경 연구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는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의 성인 회중 200명 중 20명의 자원봉사자가 연구를 위해 선발되었다. 그들은 40세에서 70세 사이의 남성 6명과 여성 14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2023년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주 동안 지속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 동안 만났다. 각 세션은 강의(1시간), 그룹 토론(40분), 개별 성찰과 피드백(2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니엘서의 역사적 맥락과 신학적 메시지를 통합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신앙 변화와 학습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조합을 사용했다. 먼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가자의 절반(10)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30-45분 동안 지속되었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⁶ John H.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50.

⁷ Byoung-ho Zoh, "Theological Insights from Daniel: A Holistic Reading Approach," *Korean Journal of Theology* 45, no. 3 (2020), 135.

둘째, 사례 연구를 위해 5명의 참가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 전, 도중, 후에 추적되었고, 그들의 개별 저널, 그룹 토론 노트, 그리고 반성 노트는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셋째, 우리는 프로그램의 시작(8월 6일)과 종료(11월 26일)에 모든 참가자를 조사했다. 설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니엘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 성경을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신앙 통찰력의 수준을 평가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성경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실제 신앙 실천에 어떻게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회에서 있을 성경공부 중 특히 다니엘서 교육에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고, 다니엘서에 흐르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질적 연구는 실제 교회 내에서 진행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위치한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 소속 성인 성도 200명 중, 자발적으로 참여한 2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남성 6명, 여성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40세에서 70세 사이였다.

성경공부 프로그램은 2023년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었으며, 주 1회 2시간씩 운영되었다. 각 세션은 강의(1시간), 그룹 토론(40분), 개인 묵상 및 피드백(20분)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다루었다.

참여자들의 신앙적 변화와 학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방식을 병행하였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 중 절반(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30~45 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다니엘서 학습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사례 연구를 위해 5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은 프로그램 전, 중, 후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며, 개별 일지, 그룹 토론 기록, 목상 노트 등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프로그램 시작일(8월 6일)과 종료일(11월 26일)에 걸쳐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점 척도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도, 성경 적용 능력, 신앙적 통찰의 수준 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성경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교회 교육 현장에서 다니엘서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목회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 장

통성경 읽기

A. 통성경 이해

통성경 읽기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이다. 이를 통해 성경의 맥락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고대 근동의 문화와 제국의 역사적 흐름을 바탕으로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⁸ 존 윌튼은 이를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 새롭게 조명하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성경 텍스트가 당시의 역사적·문화적 환경과 깊이 얽혀 있음을 강조한다.⁹ 특히 새로운 성경읽기 방식으로 '통으로 성경 읽기'를 주장하는 조병호 박사는 '통(通)'의 의미를 포괄적인 성경읽기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약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¹⁰라고 말하면서 통(通)으로 성경을 보는 방법은 그러한 성경에 '시간, 공간, 인간의 이야기를 통(通)으로' 보는 것¹¹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자.

⁸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52.

⁹ *Ibid.*, 53.

¹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5), 5.

¹¹ *Ibid.*, 11.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 안 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2,000 여 년의 시간과 1,500 여 곳의 공간과 5,000 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과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바로 통(通)성경이다.¹²

조병호 박사의 주장처럼, 수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하나 하나 독립된 과편화된 사건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병호 박사는 대상이 사람과 사물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추상적인 대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³ 이러한 방법은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당시의 상황과 그 안에 흐르는 맥락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풍성한 시야를 제공한다 하겠다. 이러한 통(通)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흔히 성경을 좋아 하는 부분만 골라 읽는 편식을 막을 수 있고,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오늘의 나에게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이러한 성경 전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를 읽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을 배치순서가 아닌 역사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다.

¹² Ibid.

¹³ 조병호, *통이다 렛츠통* (서울: 통독원, 2007), 55-57.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역사적 순서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 성경에 흐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와 함께 읽어야 하는데, 보통은 배열된 순서에 따라 읽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 성경 읽기방법은 성경을 개별적인 단편 텍스트로만 바라보는 전통적인 해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적·문화적·신학적 통일성을 탐구하는 종합적인 방법론으로 자리 잡는다. 단순히 각 장이나 절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성경의 모든 책을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의 구원 서사로 연결하려는 목표를 갖는다. 이러한 방법으로 다니엘서를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이 책은 기원전 6세기부터 2세기에 걸친 고대 근동의 제국들-바벨론, 메대(메디아)-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이후 로마로 이어지는 흐름-과 이스라엘의 정치적·종교적 상황을 생생하게 반영한다. 만약 이런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다니엘서를 읽는다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이나 다니엘 9장의 70주와 같은 상징적 이미지와 예언적 메시지가 단편적이거나 심지어 왜곡된 의미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성경 읽기는 다니엘서의 이야기 부분(1-6장)과 환상 부분(7-12장)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드러나는지를 탐구한다.¹⁴

존 윌튼은 성경이 특정한 시대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¹⁵ 그는 성경 텍스트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구분하고,

¹⁴ Ibid.

¹⁵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54.

분류와 분석을 통해 그것을 추적한다. 텍스트와 문화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오늘날의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조병호는 ‘통합 성경’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성경은 시간, 공간, 인간의 이야기가 얽혀 있는 하나의 통합된 서사로 읽혀야 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른 요소들과 분리해 따로 다룰 수 없다고 본다. 성경은 약 2,000 년에 걸쳐, 1,500 여 장소, 5,000 여 명의 인물이 참여한 압도적인 이야기다. 이 모든 요소가 통합될 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 서사로 기능하게 된다.

이런 통합적 읽기 방식은 성경 읽기에서 자주 나타나는 편향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행정사처럼 읽지 않고, 개인이 선호하는 구절만 발췌해 읽는 ‘선택적 식단’ 방식에서 벗어나게 한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였던 하나님의 이야기다. 따라서 텍스트를 순서대로 읽으며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배열 순서’가 아니라 ‘역사 순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구약-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열된 순서대로 읽는다. 하지만 성경의 사건들은 반드시 그 순서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고대 제국들의 정치·문화적 흐름과 맞물린 사건들을 따라가야 전체 흐름이 드러난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특히 요구되는 본문이다. 바벨론, 메대(메디아)-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의 흥망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자신의 주권과 계획을 드러내신다. 다니엘서의 상징, 환상,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신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구체적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다니엘 7 장의 네 짐승, 9 장의 70 주 예언 등은

그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오해되거나 과도하게 문자적 해석으로 흐를 수 있다.

성경 전체를 통독하면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으며, 다니엘서의 이야기 부분(16 장)과 환상 부분(712 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존 윌튼은 성경의 상징들이 당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황금상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마르둑 숭배 전통과 맞물려 있다. 황금상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로 얽혀 있던 제국 질서를 상징하며, 그 질서를 심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등장한다.

조병호는 이 관점을 더욱 확장해, 다니엘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승리와 구원의 완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특히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사건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 관용 정책과 맞물려 있으며, 단순한 기적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신학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양한 환상과 사건들은 각각 따로 보면 낯설고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고대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맥락 안에 놓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계적으로 드러나는 흐름이 분명하게 보인다. 예를 들어, 다니엘 2장의 금속으로 된 조각상과 7장의 네 짐승 환상은 동일한 제국들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묘사한다. 전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제국의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국의 본질과 한계를 드러낸다. 상징, 역사, 신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텍스트일수록 통합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B. 통성경 목회적 개념

목회적 관점에서 통성경 읽기는 신앙 공동체의 신학적 통찰을 깊이 있게 다듬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이는 교회가 역사적 맥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를 신앙 생활에 적용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¹⁶ 조병호 박사는 이를 "신앙과 삶을 하나로 잇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며, 신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⁷

이 접근법은 학문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공동체가 현대 사회의 도전-세속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에 맞서 신앙의 뿌리를 되찾고, 신자들이 성경을 삶의 실질적인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도구로 자리 잡는다.¹⁸ 조병호는 통성경 읽기를 "신앙과 삶의 통합을 위한 목회적 전략"으로 제시하며, 다니엘서에 담긴 구원신학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실질적인 영적 자원을 제공한다고 본다.¹⁹ 예를 들어,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권력과 오만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통해 회복되는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 이야기는 권력과 성공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에게 경고와 희망을 동시에 주며,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이 성전의 성물을 더럽힌 죄로 심판받는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 본문은 신자의 경건한 삶과 예배에 대한 태도에 대해 신학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으로 머무르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대를 분별하고 현실의 위기 속에서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존

¹⁶ Zoh, "Theological Insights," 137.

¹⁷ Ibid., 138.

¹⁸ Ibid., 134.

¹⁹ Ibid., 135.

월튼은 이를 “과거의 신학적 교훈이 현재의 신앙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 이라고 설명하며, 역사-신학-실천의 삼중 구조를 제시한다.

특히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서 부정한 음식을 거부한 사건은, 세속적 압력 속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대표적인 사례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이야기를 통해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기도로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한다(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 참조). 이는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뒷받침한다. 전체 참가자의 83%가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 고 응답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회복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고레스의 조서는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회복을 이끈 실제 역사적 사건이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C. 종합 성경 공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종합 성경공부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구성된 12주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다니엘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대 제국의 역사,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 하나님의 구속사적 흐름을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²⁰

²⁰ Ibid., 139.

매주 다니엘서 12 장을 주제별로 나누고, 이야기 본문(1~6 장)과 환상 본문(7~12 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전체 수업은 주 1 회 2 시간씩 진행되었고, 강의(50%), 그룹 토론(30%), 개인 묵상(20%)의 비율로 구성되었다. 각 본문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신학적 메시지를 연결해 해석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2 장의 금속 신상은 바벨론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의 연속성과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상징하는데, 조병호는 이를 심판-회복-승리라는 구속사의 세 단계로 분석한다. 강의에서는 존 윌튼의 고고학적 자료와 조병호의 신학적 구조를 함께 활용하며 성서 해석과 역사 이해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

조별 토론 시간에는 다니엘서의 내용을 오늘날 권력 구조나 사회적 트렌드에 비추어 자유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다니엘서 7 장의 짐승 환상을 정치 권력의 본질로 해석한 사례도 있었고, 9 장의 70 주야 예언을 개인의 영적 회복과 중보기도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다. 참가자들의 ‘신앙 이해도’는 평균 3.2 점에서 5.0 점으로, 83% 향상되었고, ‘신학적 통찰력’은 2.8 점에서 3.9 점으로 40% 상승했다. 한 참여자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며 신앙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주 2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직장인 참가자들의 높은 중도 탈락률(전체의 60% 중 15%가 중도에 이탈), 그리고 난해한 환상 본문에 들어서면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점이 그 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보조 자료(PDF), 소그룹 멘토링 등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향후 도입할 계획이다.

그 결과, 통성경 성경공부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도구였던 다니엘서를 삶을 비추는 신학적 렌즈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다니엘서 3장의 풀무불 사건은 신앙의 시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참가자들은 이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용기와 확신을 얻었다. 이는 통성경 접근이 신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실제적 교육 모델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 III 장

고대 제국의 형성 속에 담긴 구원신학

A.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치상황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 레호보암은 아버지의 억압적인 통치를 그대로 따랐고, 북부 지파들의 요청을 무시했다. 여로보암은 이를 기회로 삼아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남유다 왕국과 종교적으로 분리된 길을 선택했다. 단과 베텔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자체적인 제사를 드리며 예루살렘 성전과의 관계를 끊었다. 이런 종교적 이탈은 선지자들의 반복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고, 결국 멸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²¹

존 윌튼은 이 시기를 “제국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시기”²²로 규정하며, 정치적 불안정성이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 연결된다고 본다. 이는 단지 인간 정치의 실패가 아닌, 언약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였다.

기원전 9세기경부터 앓수르는 근동 지역을 위협하는 제국으로 부상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동맹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 했으나, 이는 오히려 앓수르의

²¹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55.

²² *Ibid.*, 57.

침공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기원전 732년 디글랏빌레셀 3세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군사적 패배를 입었고, 속국으로 전락했다.²³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시리아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이집트와 비밀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북부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대응했다. 주민들은 아시리아로 추방되었고, 이스라엘의 북부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신학적으로, 이 파괴는 제국들 간의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된다. 마크 스미스는 그것을 "약속 위반에 따른 징계적 결과"로 정의하고, 그것이 뒤따른 바빌로니아 포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신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B. 북이스라엘의 멸망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점차 군사적 역량이 약화되었다. 기원전 9세기부터 앗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북이스라엘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외교 전략은 오히려 앗수르의 침공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기원전 732년,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기원전 735-732년)는 앗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으나, 이는 오히려 앗수르의 강력한 공격을

²³ Zoh, "Theological Insights from Daniel," *Korean Journal of Theology* 45, no. 3 (2020), 128.

²⁴ Smith, *The Early History of God*, 78.

초래하였다. 앓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는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속국으로 전락했다.²⁵

그 후, 호세아 왕(기원전 732-722)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아시리아에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다. 이것은 기원전 722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을 강제로 아시리아의 여러 지역으로 추방한 아시리아 왕 살마네세르 5세와 샤르곤 2세를 화나게 했다.²⁶

신학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해석된다. 마크 스미스(Mark S. Smith)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징계”로 설명하며, 이는 다니엘서에서 다루는 바벨론 포로기와 동일한 신학적 패턴을 따른다고 주장한다.²⁷

C.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며 생존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바벨론의 강성화를 막을 수 없었다. 바벨론은 기원전 612년 니네베를 함락하고 앓수르를 멸망시킨 후,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패배시킴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였다.²⁸

남유다는 바벨론에 종속되었지만, 여호야김(기원전 609-598년)이 반란을 시도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느부갓네살 2세는 기원전 597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데 그 당시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물을

²⁵ Ibid., 79.

²⁶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60.

²⁷ Ibid., 62.

²⁸ Zoh, “Theological Insights,” 130.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이때 다른 포로들과 함께 다니엘을 비롯하여 세 친구들 역시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⁹ 이후 시드기야(기원전 597-586 년)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 역시 바벨론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기원전 586 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다.³⁰

이 사건은 다니엘서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형성한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이후 다니엘서 1 장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시작된다.³¹

D. 바벨론의 멸망

다니엘서 5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벨사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초청하여 호화로운 술잔치를 열었고, 그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여 빼앗아 온 성물, 즉 하나님께 제사드리 위해 마련된 은, 금 잔들을 가져와 술을 담아 마시게 했다.³²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사건이었고,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물을 무시한 행동이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모독한 행동이었다.³³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에 충분했고 결국 기원전 539 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²⁹ Chia, "On Naming The Subject: Postcolonial Reading of Daniel 1." 174-175; 단 1:1-2

³⁰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63.

³¹ Ibid., 64.

³² 단 5:2

³³ Mille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152-153.

대왕이 바빌론을 공격하여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는 다니엘서 5 장에 기록된 벨사살 왕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손글씨 사건과 직접 연결된다.³⁴

기원전 539 년,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왕이 바빌론을 정복했고, 제국은 무너졌다. 존 윌튼은 이 사건을 '제국의 자존심에 대한 신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해석하고, 조병호는 유다의 회복을 위한 섭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한다.³⁵

E. 페르시아의 멸망

기원전 330 년,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며 제국을 붕괴시켰다. 이는 다니엘서 8 장의 숫염소(헬라)와 숫양(페르시아)의 환상과 연결되며, 다니엘서가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음을 보여준다.³⁶

이 시기는 다니엘서의 종말론적 예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으로, 이후 헬라 제국의 분열과 안티오쿠스 4 세의 박해(기원전 167-164 년)가 다니엘서 11-12 장의 배경이 된다.³⁷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의 종교적 박해로, 그는 예루살렘 신전에 제우스의 동상을 세우고 유대인의 희생을 금지했다. 다니엘 11-12 는 이 시기를 "황폐의 가증한 것"이 시행된 박해의 마지막 시기로 묘사하며, 종말론적 구원의 희망을 강조하는 텍스트이다.³⁸

³⁴ Smith, *The Early History of God*, 85.

³⁵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66.

³⁶ Zoh, “Theological Insights,” 140.

³⁷ Ibid., 136.

³⁸ Walton,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70.

특히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기원전 175-164 년)는 유대교를 탄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멸망의 가증한 것” 을 시행하였다.³⁹ 이는 다니엘서 11-12 장에서 묘사된 최후의 박해 시기로, “종말론적 구원의 희망” 을 강조하는 핵심 사건이다.⁴⁰

³⁹ Ibid., 72.

⁴⁰ Zoh, “Theological Insights,” 140

제 IV 장

통으로 읽는 다니엘서 성경공부

A. 통으로 읽어야 하는 필요성

다니엘서에 대한 통합 성경 공부는 단순히 본문을 순차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과 주권에 대한 계획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 장의 독립적인 메시지를 하나의 틀로 연결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쓰여진 역사적 맥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의 계획"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다니엘서 1 장부터 12 장까지를 공부할 때, 각 사건과 비전은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의 더 넓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예를 들어, 다니엘 1 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빌론의 세속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유지한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서를 검토할 때, 첫째, 우리는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 즉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다니엘서는 바빌론과 같은 강력한 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흥하고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며, 인간의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이 꿈에서 왕은 바빌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제국의 흥망성쇠를 상징하는 거대한 금속상을 본다. 그러나 이 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국은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 속에서 자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괴된다는 것이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제국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그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포함한다. 둘째,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적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다. 다니엘서는 강한 예언적 요소가 있는 책이다. 특히, 다니엘 7장과 9장의 환상은 미래의 역사적 사건을 예고한다.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바빌로니아, 메대-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며, 이 제국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끝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 비전은 당시 제국의 역사적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강조하는 중요한 텍스트로 해석된다.

다니엘 9장의 70 주 예언은 메시아의 오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이 예언은 메시아의 첫 재림과 궁극적인 종말론적 승리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다. 이것은 다니엘서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다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실 구속의 전체 역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신학적 의미와 연결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다니엘서를 통합된 방식으로 읽을 때, 각 구절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단순히 교리나 이론의 모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맥락에서 어떤 신학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니엘 1 장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빌로니아 궁정에서 겪은 시험은 단순히 믿음의 시험이 아니다. 그것은 외국 세계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제공한다. 이 사건은 신자들이 세속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

넷째, 우리는 성경공부를 적용하여 오늘날의 맥락에서 다니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다니엘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다니엘 3 장의 불타는 용광로의 사건은 신앙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현대 사회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결의를 요구한다. 세속적인 문화나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려는 다니엘의 시도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큰 도전이다.

다니엘 6 장의 사자굴 사건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한다.

다섯째, 통성경 성경공부의 효과를 살펴보자면 이와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성경공부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은 다니엘서가 단지 고대 제국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이렇게 성경공부 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는 점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신앙적 통찰력은 평균 3.2에서 5.0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통성경 읽기가 성경을 보다 풍성하게 이해하고,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작게 나누고 쪼개어 현미경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들여다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신학교에 들어간 본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수업을 들을 때였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기를 ‘신학은 성경을 도마위에 올려 놓고 작게 자르고 쪼개어 분석하는 것이다’ 고 했었다. 그때는 그 방법이 참으로 새롭고, 말씀을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낸다는 것이 흥미가 있었다. 단어 하나 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며 전해지는 새로운 세계가 무척이나 새로웠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한 놀라움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설교자로서 좀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우쭐함도 부정할 수 없겠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과 해석을 통한 설교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이야기 즉 성경은 어느 한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역사 이전의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성경은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우리들에게 교훈과 미래를 열어갈 길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듣는 자세일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나누고 쪼개어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와 이야기에서 종말에 이르는 역사, 그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러한 성경이야기는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그리고 시대적 배경속에서 오늘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역사속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속에 펼쳐지는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특별히 다니엘서의 내용은 고대 근동의 여러 정치적 격동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통해 고대 제국의 형성과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분석하며, 실제 성경공부를 적용한 사례를 통해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니엘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개별 장이나 구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책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메시지를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다니엘 4 장의 심판 이야기, 다니엘 9 장의 회복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니엘 12 장의 종말론적 승리의 비전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통으로 읽을 때 이 요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계획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연결된다. 이러한 전체적 관점은 단편적 해석이 간과할 수 있는 깊은 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B. 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

다니엘서에서 배우는 신앙 성장 성경공부 교재 (10 과 과정)

주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 계획을 익히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성경공부 교재입니다.

제 1 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결단

본문: 다니엘 1:1-21

주제: 신앙의 타협 없는 결단

목표: 세속 사회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을 배운다.

학습 내용

1.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
2.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의 신앙적 결단
3.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

적용 질문

-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제 2 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

본문: 다니엘 2:1-49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속 계획

목표: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습 내용

1.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과 다니엘의 해석
2. 금, 은, 청동, 철, 흙으로 된 신상의 의미

3.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영원함

적용 질문

- 나는 삶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제 3 과: 풀무 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세 친구

본문: 다니엘 3:1-30

주제: 신앙을 지키는 용기

목표: 믿음으로 세상의 압박을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

학습 내용

1.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과 절하지 않은 세 친구
2. 풀무 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3.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적용 질문

-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이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제 4 과: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심판

본문: 다니엘 4:1-37

주제: 교만과 겸손

목표: 교만이 불러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겸손한 신앙의 중요성을 배운다.

학습 내용

1.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대한 나무의 꿈
2. 하나님께서 교만한 왕을 낮추심
3. 회개하고 겸손해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함

적용 질문

- 내 삶에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은 무엇인가?

제 5 과: 벽에 쓰여 진 글 -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본문: 다니엘 5:1-31

주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학습 내용

1. 벨사살 왕의 교만과 성전 기물 모독
2.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쓴 글씨의 의미
3. 교만한 바벨론 왕국의 멸망

적용 질문

- 하나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는가?

제 6 과: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

본문: 다니엘 6:1-28

주제: 신앙을 실천하는 용기

목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배운다.

학습 내용

1.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함
2. 사자 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3.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함

적용 질문

-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제 7 과: 네 짐승의 환상과 하나님의 나라

본문: 다니엘 7:1-28

주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보다 위대함을 배운다.

학습 내용

1. 다니엘이 바라 본 네 짐승(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2. 인자 같은 이(메시아)가 세우실 영원한 나라
3.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적용 질문

-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가?

제 8 과: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70 이레 예언

본문: 다니엘 9:1-27

목표: 주시는 분임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다니엘의 이스라엘을 위한 회개 기도
2.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70 이레 예언
3. 메시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적용 질문

-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

제 9 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본문: 다니엘 10:1-21

주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과 기도의 중요성

목표: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이 존재하며, 기도가 중요한 무기임을 배운다.

학습 내용

1.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남
2. 영적 전쟁이 실재하며, 천사 미가엘이 싸움에 개입함
3.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심

적용 질문

- 나는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는가?
-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가?

제 10 과: 최후의 환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본문: 다니엘 12:1-13

주제: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목표: 하나님께서 종말을 계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음을 배운다.

학습 내용

1. 말세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계획
2. 의로운 사람은 영생을 얻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받음
3.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

적용 질문

-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끝날의 계획을 믿고 있는가?
- 말세를 준비하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가?

C. 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적용(Case Study)

배경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미국 버지니아에 위치한 한인 교회이다. 최근 들어 성도들 사이에서 성경을 새롭게 읽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성경 읽기를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다니엘서를 포함한 성경 속 이야기들이 고대 근동의 복잡한 정치적 변화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 보니,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에게는 내용 자체가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인 줄거리만 따라가거나,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 시기는 이집트, 바벨론, 앗수르, 페르시아, 헬라 제국까지 이어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역사적 배경과 흐름속에 다시 읽게 된다면, 성경의 전체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다니엘서의 배경에 흐르는 시대의 흐름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읽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니엘서를 통으로 읽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과정으로 다니엘서를 선정하였으며, 12 주 동안 진행되는 성경 공부 모임을 개설했다. 참가자는 총 20명(남성 6명, 여성 14명)이며, 연령대는 40세에서 70세까지 다양했다.

1. 프로그램 진행 과정

1주 차: 오리엔테이션 및 역사적 배경 학습

- 참가자들은 다니엘서가 기록된 바벨론 시대의 배경을 학습했다.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벨론 같은 문화적 도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눈다.

2주 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공부

-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지 학습했다.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오늘날 가정과 사회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질문을 나눈다.

3주 차: 풀무 불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

-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본다.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속에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질문을 나눈다.

4주 차: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겸손

-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나.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삶 속에서도 교만해 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해 질 수 있는가? 를 고민한다.

5주 차: 벨사살 왕와 하나님의 심판

- 벨사살 왕의 교만과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경고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토론한다.

6 주 차: 다니엘의 기도와 신뢰

-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생각을 나누고,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눔.

7주 차: 네 짐승의 환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 다니엘이 받은 네 짐승(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의 환상의 의미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 속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이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다른지 토론.

8주 차: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

- 다니엘이 페르시아(숫양)와 그리스(숫염소)의 역사적 대립을 예언하는 환상을 봄.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다니엘이 본 숫염소와 숫양의 의미에 대해 나눔.

9주 차: 다니엘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아와 마지막 때에 대한 70 이레의 예언을 전해 줌.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지 생각을 나눔.

10주 차: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환상을 보여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전달.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토론함.

11 주 차: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 강대국들의 전쟁과 메시아 시대 이전에 일어날 정치적, 영적 격변을 예언함.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강대국들의 전쟁이 무엇인지, 11 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토론을 나눔.

12 주 차: 끝날과 영원한 생명

-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고, 의인들은 영생을 얻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
- 강의 후 소그룹 토론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론.

2. 인터뷰 원문

인터뷰 개요

통으로 읽는 다니엘 성경공부에 참여한 20명 중 6명을 선별하여 진행했다. 2023년 가을에 진행한 성경공부에 참여한 인원은 총 20명으로 연령대는 40대에서 70대로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인터뷰 방법은 일대일 대화로 진행했다. 인터뷰 진행시기는 12주 성경 공부가 끝난 후 2023년 11월에 진행하였다.

Q1: 다니엘서 학습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고대 근동의 역사가 이번 성경공부를 하면서 쉽게 이해되었고, 당시 시대적 상황과 함께 성경을 읽게 되니까 말씀이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023년 11월, 자영업 A(62세)]

A: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23년 11월, 직장인 A(55세)]

A: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자영업 A(68세)]

A: 다니엘 6장의 사자굴 이야기를 묵상하며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직장인 A(45세)]

A: 물건을 팔면서 윤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3년 11월, 자영업 A(62세)]

Q2: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나요?

A: 사자 굴 사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처럼, 저도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직장인 A(45세)]

A: 그동안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다니엘서 배경에 흐르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함께 배우게 되니까 성경이 더 잘 이해되어지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가정 주부 A(59세)]

Q2: 다니엘서 성경공부를 하고 난 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A: 첫 시간에 사전 기본 교육이 있었다면 초반 혼란을 덜 겪었을 것 같아요. [2023년 11월, 가정 주부 A(68세)]

A: “온라인 자료가 있었다면 결석 시 보완이 쉬웠을 것 같아요.” [2023년 11월, 직장인 A(45세)]

3. 설문조사 결과

신앙 성장 분석

-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신앙 이해도는 평균 3.5점(5점 만점)에서 4.8점으로 향상되었다.
- 특히 “다니엘서의 역사적 맥락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 일부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자발적으로 성경 읽기 모임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항목 프로그램 전 (평균 점수) 프로그램 후 (평균 점수) 변화율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 이해도 3.0 4.7 +56%

신앙적 결단의 중요성 인식 3.5 4.9 +40%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 3.2 4.8 +50%

프로그램 만족도 - 4.9 -

- 응답자 수: 20명
- 응답률: 100%

4. 통설교 본문

“다니엘 6:13-24 절”

<다니엘 6:13-24 절>

구약의 묵시문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성경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인데요, 요즘 새벽에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 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까지만 해도, 교회다니는 것을 감추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교회다니는 아이들은 식사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왠지 기도하는게 창피해서 감추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기도는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눈만 깜박이면서 동시에 “아멘” 만 속으로 외치고는 밥을 먹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교회다니는게 부끄럽고, 친구들에게 감추고 싶고, 자신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요, 교회다닌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안그런척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거 아세요? 일하는 일터에서 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으면 교회 다닌다는 것,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밝히길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생색까지 내놓고, 오히려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왠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때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건 아닐까요?

신앙인으로서 주변에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의 삶을,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 만큼 보람있는 신앙인의 삶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도록 더욱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시간 전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음으로 벨사살 왕, 그 다음으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때부터 꿈을 잘 해몽하기로 유명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부터 나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 때에는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기도 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 장 3 절을 보게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고 기록합니다. 왕에게 인정받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고, 다른 고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질투심에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추락시킬 수 있을까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을 보니까, 포로 출신에 고위 관직인 총리까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방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자신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는 커녕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만 되면 꼭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동안 세 번 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무릎을 칩니다. 그래! 저거다! 저걸 빌미로 다니엘을 끌어 내릴 수 있겠구나.

6 장 7 절에 신하들이 왕의 금령, 그러니까 절대 번복할 수 없는 법을 내리게 합니다. “이제부터 삼십 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매일 매일 꼬박 꼬박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옹아 땔 수 있는 덫을 놓은 것이죠.

자초지정을 모르는 다리오 왕은 그 조서에 그만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속으로 쾌자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고 기록합니다.

“Never mind~” 상관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왕의 금령으로 기도를 막으려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 좋은 모습을 억지로 보이려 하는 것은 잘못이겠지만, 늘 신앙생활이 몸에 베어 있는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조금만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에 부러움을 느끼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포로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기도의 시간 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도 본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순결한 삶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작은 창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오히려 이용하는 신하들. 그럼 그렇지~! 딱 걸렸다! 신이 나서 왕에게 일러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왕이 직접 도장을 찍은 금령이기에 번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리오 왕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고관들의 계략에 별 생각없이 찍은 도장이었는데, 그 금령으로 인해서 신실한 다니엘이 덫에 걸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여지는 왕의 모습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이 다리오 왕의 반응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먼저, 14 절에 보면,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 질 때에 이르렀더라” 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종일 다니엘을 구원할 생각에 동분서주 하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동안 자신에 앞에 있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던 것일까요? 판에는 자신의 실수를 번복해 보려 하지만, 금령으로 내린 명령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번복할 수 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법에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니엘이 얼마나 평소에 신실한 모습이었으면, 다리오
 왕도 그런 다니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봅시다.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지만, 18 절에,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방 나라이지만, 그 왕이 포로출신 다니엘, 자신의 신하 다니엘을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하며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19 절에,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 갑니다. 20 절에, “슬피 소리
 질러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오 왕의 진실된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0 절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왕이 부르는 다니엘의 호칭입니다. 얼마나
 멋진 호칭입니까? 이런 칭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졌어도 털끝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그 모습을 지켜본 다리오 왕의 모습을 보세요. 23 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이었더라”

사자 굴에 던져질 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섬기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며 우리를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삶의 자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리오 왕도 인정하고 고백한 것 처럼,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백의 삶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답답한 삶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록 나의 말 한마디 한 마디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또 나의 행동을 통해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두손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쑥 불쑥 솟아나는 나쁜 감정들이 있다면, 꺾어지게 하시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쓴 뿌리를 내려 놓고, 온유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오늘 하루의 삶에
 동행하심을 믿으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10:1-14 절”

<다니엘 10:1-14 절>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서는 역사의 순서대로 쓰여진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깊게 읽지
 않으면 내용이 복잡해지고, 시대순서가 뒤죽 박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있던 왕이 어떻게 됩니까? 느브갓네살 왕, 그
 다음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6장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7장부터는 다시 벨사살 왕 시절에 보았던 환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상에는 사자, 곰, 표범, 열 뿔에 관한 이상을 보았는데요, 이는 순서대로 바벨론,
 메대, 바사, 알렉산더 제국, 로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가운데

이어지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것입니다.

9 장에서는 다시 다리오 왕 시절에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그리고 오늘 10 절 말씀에서는 1 절을 보다시피 바사 왕 고레스 제 삼년에 보았던 환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 장의 내용도 잠깐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9 장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포로로 먼 이방나라에 잡혀왔던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떠나면 이방나라에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다니엘 이었던 것 같습니다.

9 장 2 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책은 예레미야서를 말하죠.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목상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는 분명 칠십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서를 읽은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지 66 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70 년에 해방된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횃수는 4 년입니다. 이제 예언대로 4 년이 지나면,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해진 다니엘은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9 장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레스 왕이 집권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무서운 환상이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기에 다니엘은 3주 동안이나 슬퍼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3주 동안 좋은 떡이며 고기, 포도주를 먹지않고 경건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3주를 보내고 첫째 달을 맞이하게 된 다니엘,, 히데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 이라고 불리는 큰 강가에 서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본게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입는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순금의 띠를 차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에다가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고 기록합니다.

사람처럼 생긴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지 생김새는 모르겠고, 온통 빛나는 신비한 모습에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보이고, 유일하게 다니엘에게만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죠. 주변사람들은 안보이긴 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에 크게 떨며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이 신비한 모습을 보던 다니엘, 갑자기 온 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것 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맥없이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었습니다. 깊이 잠들은 듯

했는데.. 한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집니다. 가만히 어루만지더니 일으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말씀해 줍니다. 11 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을 위해서 보냄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얘기합니다. 12 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기위해 천사를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게 결심한 날부터 말입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한 그 첫날 부터 하나님이 도와 주라는 명을 받고 오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다니엘을 돕기 위해 오는 길에, 바사 왕의 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 영적으로 백성들을 돕느냐고 좀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다행히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서 이렇게 마지막 예언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그리고 찾아온 천사의 말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포로생활이 길어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70 년의 약속이 거의 다 오건만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지치고 낙심과 좌절가운데 슬피 울며 기도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70 년 가까운 이방살이,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땐 마음이 무너지고 큰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바이러스의 공포속에 2~3 달 고생하고 있는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생활한지 벌써 70 년이 가까워 질 때였습니다. 지칠대로 지치고, 이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할 때였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는 그 기간, 깨어 기도하던 다니엘, 12 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기도하던 그 첫날, 그 시작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말을 보세요, 기도하던 그 첫날 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요.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을 지라도, 우리가 올려 드리는 기도는 땅에 힘없이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기를 그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라” 는 말은 히브리 말로 “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 드리고 주님의 때에 나를 일깨워 다시 그 문제를 놓고, 주님께 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던진 것을 받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론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천사의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방해가 있어서 이십일 늦어졌다는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주세요. 이거 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환경을 변화시킬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 성격과 마음 자세를 고치도록 기다리며 독려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과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천사의 고백을 통해 전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생활에 지칠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막막한 앞날을 생각할 때 슬프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아 쓰러져 낙심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위로의 손길이 천사를 통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이 언제 부터 역사한다고요? 12 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결심, 그러니까 기도한

그 첫날” 부터 라는 것입니다.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날 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이지만,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보며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당장 눈에는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힘들어 지칠 때가 있어도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돕는 손길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두 팔로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늘 돕는 손길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의 끊을 놓지 않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하심을 맛보며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V 장

결 론

A. 연구 요약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바빌론, 메대-페르시아, 헬레니즘과 같은 고대 제국의 역사적 배경을 다니엘서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이를 교회의 성경 연구에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경 읽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단순히 다니엘의 예언적 메시지를 상징이나 신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실제 역사적 흐름의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여 신앙을 심화시키고 더 풍부한 신학적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분석과 함께 질적 연구 방법(인터뷰 및 사례 연구)을 수행했으며, 2023년 8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12주 동안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한국 교회의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성경 읽기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조사한 결과, 참가자들의 성경 이해도가 평균 83% 향상되었고, 그들의 신학적 통찰력도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 참조). 특히, 다니엘서에서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심판', '회복', '종말의 승리'라는 주제가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와 얽혀 있다는 사실은 종교 공동체의 신학적 성숙도에서 역사적 배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1. 시간 제약: 평균 출석률은 75%였지만, 전체 참가자의 약 25%가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사전 지식 부족: 참가자의 60%는 고대 근동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하여 다소 낮은 초기 학습 효과를 보였다.

3. 참여율 감소: 프로그램의 후반부(9~12 주차)에 하차율이 약 15% 증가했으며, 이는 바쁜 일정과 누적된 학습 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교회 교육에 매우 유익한 방법임이 입증되었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B. 결론과 제안

이 연구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신앙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식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이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에 따라, 성경적 해석에 대한 관점이 넓어졌고 그들의 실제 삶에 신앙을 적용하려는 의지가 증가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은 예언적 메시지를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서 실용적인 도구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의 환상이나 12장에서 부활의 약속에 대해 배운 참가자들은 그것을 현대 생활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참가자(김 00, 56 세)는 인터뷰에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게 된 후, 믿음은 더욱 실용적이고 구체적이 되었다"(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 부족과 사전 지식 부족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가 제안된다.

1. 사전 입문 과정 소개

고대 근동 역사와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4주 전에 입문 과정이 제공된다. 이것은 참가자들의 배경 지식 부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초기 강의의 이해 수준을 이전 40%에서 70%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 참가자(김 00, 68 세)는 "처음에 기초교육이 있었다면 혼란이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던(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 참조)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정이 다니엘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된다.

2. 강의 시간 조정 및 구조 개편

현재 주당 2 시간씩 진행되는 강의는 3 시간으로 연장되며, 1 시간은 강의, 1 시간은 그룹토론, 나머지 1 시간은 개인 성찰과 Q&A 이다.

또한 목표는 10~15 분짜리 동영상 강의 및 챕터 요약 PDF 와 같은 보충 자료를 제공하여 출석률을 이전 75%에서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Lee 00(45 세) 참가자는 "온라인 자료가 있었다면 내가 없을 때에도 내용을 따라가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개선을 제안했다.

3. 소그룹 멘토링 운영

5 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멘토링을 소개하여 각자의 학습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지한다.

실제로 멘토링을 받은 세 명의 참가자는 100%의 출석률을 기록했으며 평균 신앙 이해 점수는 4.8 점이었다(통성경 성경공부 사례 예시 참조).

4. 연구 확장 및 후속 연구 제안

향후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미국의 다른 한국 교회와 한국의 다양한 지역 교회에 적용하여 지역 및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구는 20 명의 비교적 적은 표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50 명 이상의 대규모 실험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니엘서 외에도 요엘, 스가랴, 아모스와 같은 다른 예언서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읽음을 통해 구약의 예언서를 보다 입체적인 방식으로 보고 신앙 공동체의 종말론적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경 연구자 조병호는 "다양한 예언서를 아우르는 연구가 신앙 공동체의 영적 성숙을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연구와 실천이 계속된다면,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론 그 이상이 될 것이지만, 전체 신앙을 바꾸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Books)

Chapell, Bryan. *The Gospel According to Daniel: A Christ-Centered Approach*. Grand Rapids: Baker Books, 2014.

Fewell, Danna N. *Circle of Sovereignty: Plotting Politics in the Book of Danie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Gangel, Kenneth O. *Daniel: Holman Old Testament Commentary*. Edited by Max Anders. Nashville: B & H Publishing Group, 2001.

Gowan, Donald E. *Daniel: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Daniel: Foundations for Expository Sermons*. Grand Rapids: Eerdmans, 2012.

Hartman, Louis F., and Alexander A. Dilella. *The Book of Daniel: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5.

Howe, Thomas A. *Daniel in the Preterists' Den: A Critical Look at Preterist Interpretations of Daniel*. Eugene: Wipe & Stock, 2008.

Jordan, James B. *The Handwriting on the Wall: A Commentary on the Book of Daniel*. Powder Springs: American Vision Press, 2010.

Longman III, Tremper. *Daniel: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9.

Miller, Stephen R. *Danie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Exposition of Holy Scripture*.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Newsom, Carol A. *Daniel: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4.

Pace, Sharon. *Daniel: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2008.

Philips, John. *Exploring The Book of Daniel: An Expository Commentary*. Grand Rapids: Kregel, 2004.

Sprinkle, Joe M. *Daniel: Evangelical Biblical Theology Commentary*. Bellingham: Lexham Press, 2020.

Steinmann, Andrew E. *Daniel: Concordia Commentary*. Sain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8.

Strauss, Lehman. *The Prophecies of Daniel*. Winona Lake: BMH Books, 1969.

Walton, John H.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Introducing the Conceptual World of the Hebrew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Smith, Mark S. *The Early History of God: Yahweh and the Other Deities in Ancient Israel*.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

한국어 단행본 (Korean Books)

성주진. “다니엘의 대응 전략: 다니엘 1장 주해와 적용.” In 다니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153-154. Edited by 목회와 신학 편집부. 제 28 권.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조병호. 통이다: *Let's 通*. 서울: 통독원, 2009.

_____.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20.

_____. 성경과 고대정치: 고대 제국 왕들의 통치 조서와 명령들. 서울: 통독원, 2021.

_____. 와우! 예레미야 70년: 징계 70, 교육 70, 안식 70, 제국 수명 70, 새 언약 예고. 서울: 통독원, 2018.

_____. 통성경 길라잡이: 지도자 지침서. 서울: 통독원, 2020.

_____.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21.

_____. 성경통독과 통(通)신학. 서울: 통독원, 2016.

_____. 성경과 5대 제국: 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서울: 통독원, 2011.

번역된 한국어 단행본 (Translated Korean Books)

Zoh, Byoung-ho. *The Rise and Fall of the Five Empires in the Bible*.

Seoul: Tongdokwon, 2017.

_____. *Tong Bible: To see the Bible Using the Tong Method*. Seoul: Tongdokwon, 2017.

학술 논문 (Journal Articles)

Walton, J. “The Decree of Darius the Mede in Daniel 6.”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31 (1986): 279-286.

Zoh, Byoung-ho. “Theological Insights from Daniel: A Holistic Reading Approach.” *Korean Journal of Theology* 45, no. 3 (2020): 123-145.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Chanyoung Choi

Place and Date of Birth: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June 6, 1978

Parent`s Names: Myungshik Choi and Sungsoon Whang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Collegiate: Hanshin University 137 Hansindae-gil, Osan-si, Gyeonggi-do, South Korea	B. A.	Feb, 2024
Graduate: Hanshi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159 Insubong-ro, Gangbuk-gu, Seoul, South Korea	M. Div.	Feb, 2007
Drew University 36 Madison Ave. Madison, NJ 07940, USA	M. A.	Dec, 2015
Union Theological Seminary 3041 Broadway, New York, NY 10027, USA	S. T. M.	Dec, 2017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Chanyoung Choi

Name typed

March 10, 2025

date